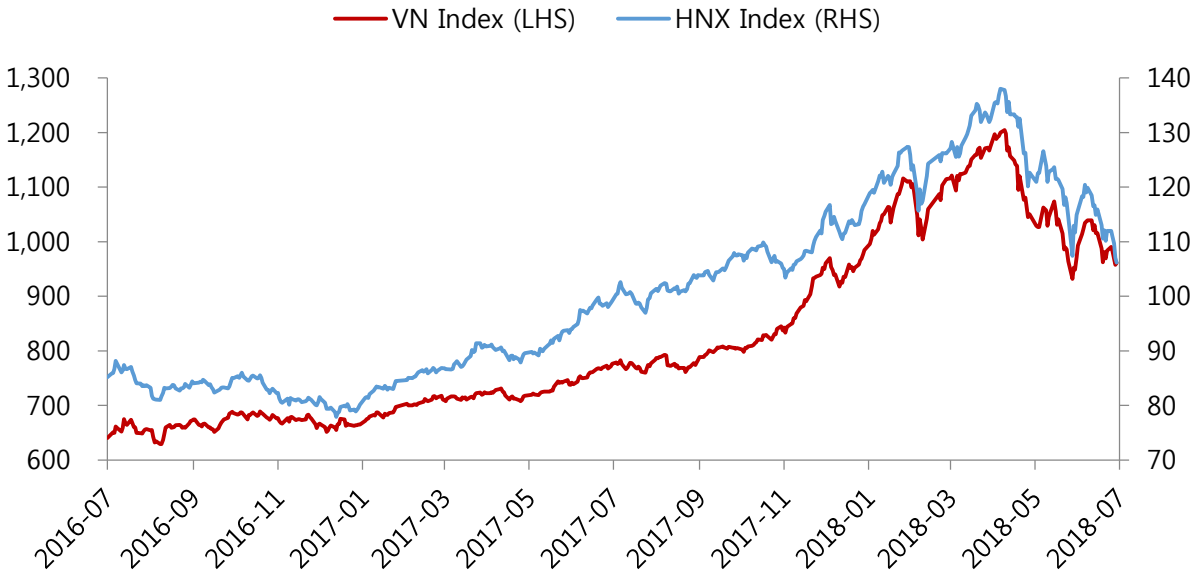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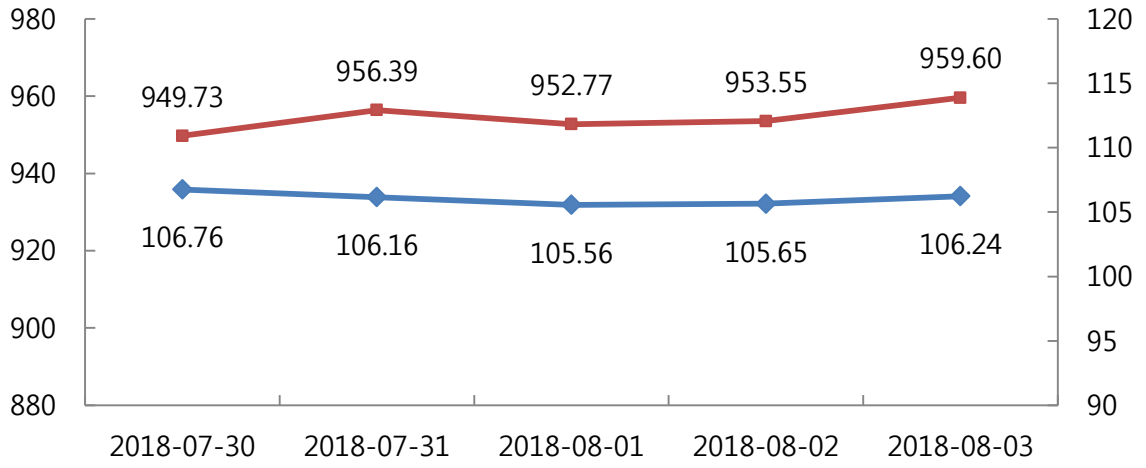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VN 지수가 계속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요일 VN 지수는 959.60 포인트로 마감하며 이전 주에 비해 2.57% 올랐다. HNX 지수는 0.51% 오른 106.24 포인트를 기록했다. Vingroup 과 그 자회사 Vincom Retail, Vinhomes 가 금요일 2 분기 및 상반기 매출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 관련 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

■ 개별 기업 뉴스

○ VietJet 항공, 국제선의 힘으로 2분기 이익 증가해

저가 항공사 VietJet 항공이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난 4,100만 달러의 2분기 세전 이윤을 발표했다. VietJet 항공 CEO Nguyen Thi Phuong Thao는 2분기 3억 7,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말했다. 더 많은 고객들이 VietJet의 국제선을 이용하고, 보험 및 기내식 판매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덕분이다. 그는 국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제선 구간을 확장하고 식료품과 수하물 수수료, 보험료 증가 등 항공권 외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다.

○ 베트남 정부, 내년 PV Oil 지분 매각 가능성

베트남 정부가 2019년 현재 80.52%에 달하는 PV Oil 지분을 35.1%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PV Oil CEO Cao Hoai Duong은 30일 열린 연례 총회에서 외국인 소유권 한도에 대한 지침을 찾고 있다고 주주들에게 전달했다. PV Oil은 지난 12월 44.72%의 지분을 외국인 전략 주주들에게 매매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PV Oil은 작년 IPO를 보류했으며, 빠르면 2019년 내에 호치민 증권 거래소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Duong은 말했다.

2. 주요 경제 동향

■ 베트남, 세계은행 물류 성과 지수 25단계 뛰어올라

세계은행의 최신 물류 성과 지수 보고서(LPI)에 따르면, 베트남은 160개 국가들 중 39위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전보다 25 단계 뛰어오른 것으로, 세계은행이 처음 순위를 발표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올해에는 독일,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일본이 상위 5개국으로 꼽혔다. 베트남 인접국 중에는 태국이 32위로 베트남에 여전히 앞섰다.

2016년 조사에서 베트남은 160개 국가들 중 64위를 기록했으며, ASEAN 국가들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에 이은 네 번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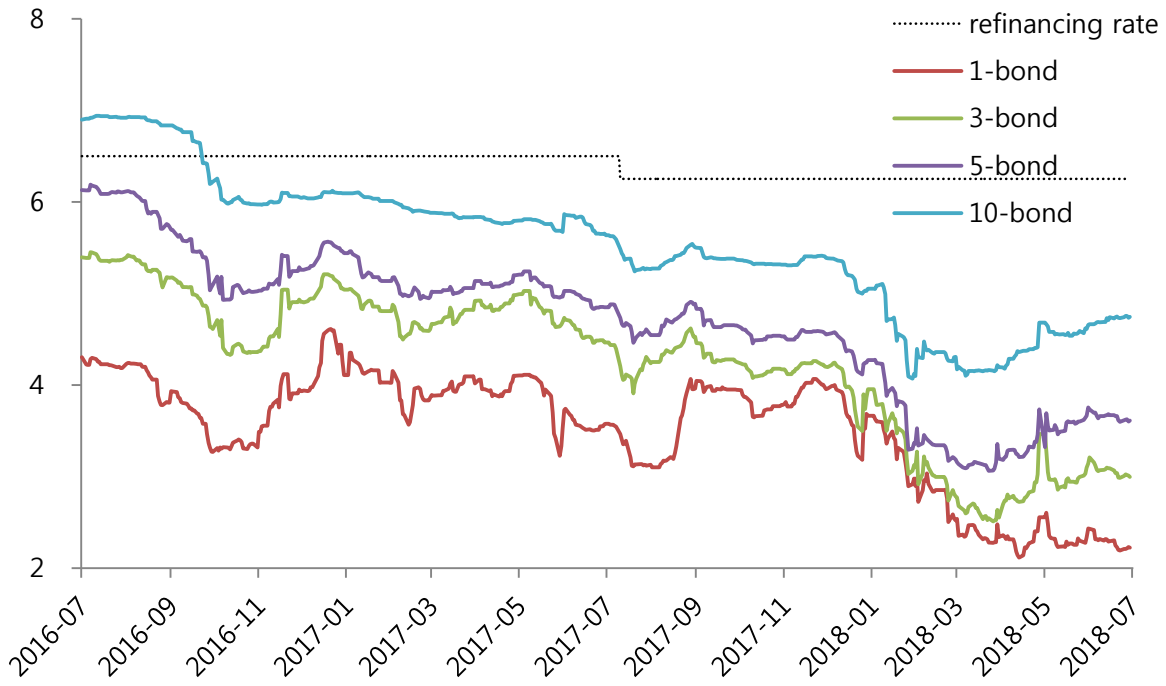
■ 베트남-캄보디아 이중 과세 방지 협약 비준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캄보디아 간 이중 과세 방지와 소득 탈세 예방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정부는 재무부에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관련 정부 부처와 협조해 본 협약을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제 및 무역 분야의 유대는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깊어지고 있다. 2017년 쌍방 무역의 규모는 전년 대비 30% 성장한 38억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의 190개 투자 프로젝트의 모국이며, 등록된 총 투자 규모는 28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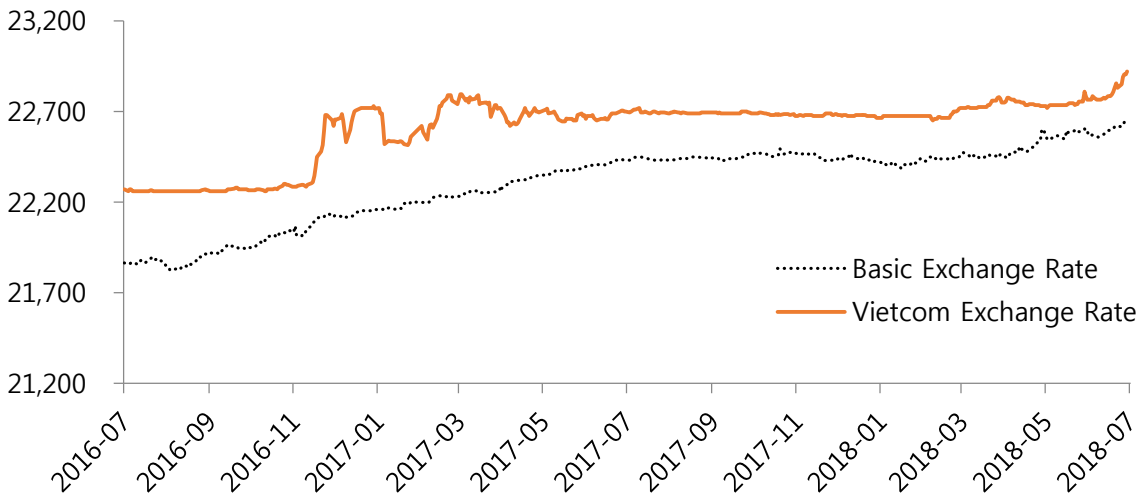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8-08-03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250	23,260	23,340



■ 증권 회사 상반기 매출 54% 증가

지난 분기 주식 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증권 회사들의 상반기 실적은 1분기 실적 호조의 영향을 받아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 21개 증권사의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오른 10조 7,000억 동(4억 6,52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후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한 3조 5,000억 동이었다. 2018년 1분기 증권사 실적의 가파른 증가에는 1분기 주식 시장의 강세가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2분기 실망스러운 시장 성과의 악영향을 상쇄했다.

■ 외국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 규제 강화 필요해

산업통상부가 가상화폐 채굴기 수입 중단을 위해 재무부, 사법부 및 베트남 중앙 은행과 협력하고 있다고 산업통상부의 관계자가 말했다. Do Thang Hai 산업통상부 차관은 7월 정부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은 베트남에서 통화나 합법적 지불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통상부가 가상화폐 채굴기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비트코인 채굴 컴퓨터는 시스템화 된 상품 설명과 코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HS 코드 상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Hai 차관은 정부의 2018년 5월 15일자 대외 무역 관리 법령 69의 세부 조항에 따라 그것들이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정 필요한 경우 채굴기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호치민시, 2020 년까지 도심 지역의 콘도 개발 중단 예정

2016-2025 년 호치민시 정부의 주택 개발 계획에 따르면, 2020 년 까지 1 군과 3 군에서의 새로운 고층 아파트 프로젝트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5, 6, 8, 10, 11 군과 Tan Binh, Tan Phu, Phu Nhuan, Go Vap, Binh Thanh 에서는 새로운 고층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동시에 도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고 현대적인 양식의 풍경을 재활성화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 주택 및 고층 콘도 프로젝트는 2, 9 군과 Thu Duc 을 잇는 지하철 1 호선 등의 대중 교통로와 함께 2, 7, 9, 12, Thu Duc, Binh Tan 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호치민시는 5 개 외곽지역에서 마을, 전원 지역, 주거 지역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 및 주요 도로 연결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호치민시 도심의 급격한 고층 아파트 증가는 심각한 교통 혼잡을 발생시켰다. 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 주민들이 외곽으로 이동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 고급 아파트 판매 하락세에 투기꾼들 탈주 시작해

투기업자들이 고급 아파트 시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부분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Doan Nhan Sai Gon 이 전했다. 특히 상업 은행들이 신용 대출을 강화하기 시작한 이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한 압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CBRE Vietnam 의 Nguyen Hoai An 은 투자자들이 연말 신규분양 상품을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시장은 이전 분기에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흡수'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일부 투자자들은 신규분양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CBRE 에 따르면, 판매량의 감소는 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호재다. 이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 개발 및 시장 분석에 이전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5. 한국 기업 동향

■ 신한은행, 베트남 디지털 플랫폼 3 사와 금융생태계 구축

신한은행은 베트남 국민 메신저 '잘로'(Zalo)를 비롯한 현지 대표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 출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26 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우선 베트남의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잘로를 통해 신용카드 사업을 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신한베트남은행의 광고모델인 박항서 감독과 축구선수 쯔엉을 형상화한 잘로 이모티콘을 배포하기로 했다. 또 베트남 1 위 전자지갑 플랫폼인 '모모(MoMo)'와 전자지갑 충천용 신용대출을 선보인다. 향후 모모와 모기지론,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플랫폼에 추가할 예정이다.

(More informatio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6/0200000000AKR20180726133600002.HTML?input=1195m)

■ DB 손보, 베트남 3 위 손보사 품고 동남아로 거점 확대

DB 손해보험이 신흥시장인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DB 손보는 베트남이 가진 시장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진출방안을 검토했고, 현지 우량 손해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현지 보험사에 수수료를 주고 한국기업을 상대로 영업하는 '대행영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침 베트남우정통신공사(VNPT)가 최대주주인 PTI 손해보험이 한국 보험사의 TM(전화영업)과 IT(정보기술) 노하우를 전수받기를 원했다. 이를 계기로 DB 손보는 2015 년 1 월 당시 베트남 손해보험시장 점유율 5 위인 PTI 손보 지분 37.3%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PTI 손보의 장점은 전국 1 만 2000 개에 달하는 우체국 망이다. 베트남은 우체국에서 차량 및 오토바이 등록업무를 하고 보험도 판매한다.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록을 하러 왔다가 보험가입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 막강한 판매채널이다.

DB 손보의 동남아 진출전략은 PTI 손보 인수사례에 고스란히 담겼다. 현지 보험환경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 후 현지 손보사의 브랜드와 채널, 인프라를 조사해 현지시장 공략이 가능한 사업파트너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내 보험과 경영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현지 파트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키운다.

(More Information: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3008121932606)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권창중 kwoncj5611@naver.com +84-93-277-498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